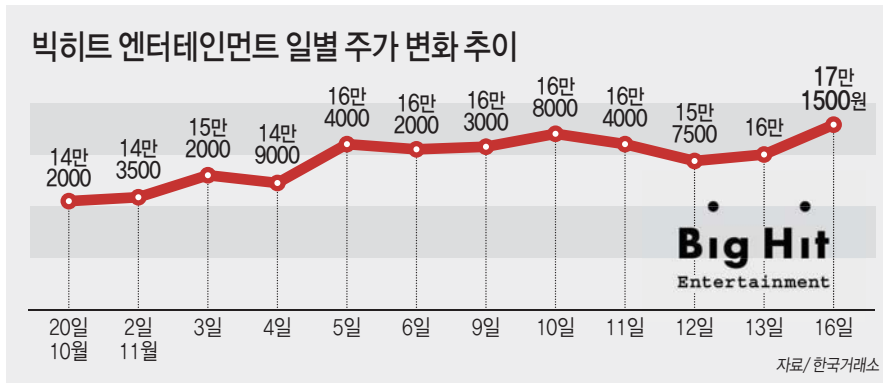


빅히트, 기관보유 132만주 쏟았지만 3분기 호실적에 강세

의무보유 종료에 주가하락 우려
3분기 실적 선방으로 악재 상쇄
증권업계, 4분기 전망 상향조정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 주가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기관이 보유한 한 달간의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돼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우려에도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로 악재를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빅히트는 4.66% 급등한 17만 9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말 주가(14만2000원)와 비교했을 때 무려 26.40%나 올랐다.

기관이 보유한 빅히트 1개월 약약분 132만3416주의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

됐다. 의무보유 기간이란 공모주를 배정받는 조건으로 보유 주식을 특정 기간 안에 팔지 않겠다는 약정을 의미한다. 의무보유 기간은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설정된다. 이어 3개월 약약분은 76만5179주(17.87%), 6개월 약약분은 106만3100주(24.83%)다.

이번 1개월 약약분은 기관 배정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인 30.88%를 차지하고 있어 기관의 차익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16일 빅히트를 2751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빅히트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외국

인이었다. 외국인인 빅히트 주식을 4644억원 순매수했다. 3분기 호실적 달성으로 매수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빅히트는 올해 3분기 매출액 1900억원, 영업이익 40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분기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22%, 38% 증가한 것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각각 54%, 73%나 늘었다.

빅히트 관계자는 “음반의 판매가 견조했고, 공식 상품(MD) 매출의 꾸준한 증가 및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인수 효과 등으로 3분기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고 밝혔다.

결국 빅히트의 주가 향방은 향후 실적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증권업계는 빅히트의 4분기 실적 전망치를 매출액

3416억원, 영업이익 638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현용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빅히트는 방탄신보가 없었던 상황에도 세븐틴 120만장, BTS 80만장, TXT 45만장 등 250만장에 달하는 판매고를 기록했다”며 “시장점유율도 37%로 업계 1위”라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분석도 나왔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팬덤 기반의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자체 글로벌 팬 플랫폼인 위버스(Weverse) 구축으로 지속 성장이 전망된다”며 “아티스트 확대 및 플랫폼 가치는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차기 코스콤 사장 안갯속... 재공모 진행 중

내일까지 후보 추가 공개 모집
관피아·낙하산 인사 등장 시선도

오는 23일 정지석 코스콤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차기 사장 후보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코스콤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는 10월 말부터 차기 사장 공모 절차에 나섰지만 돌연 오는 19일까지 후보 추가 공개 모집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앞서 코스콤 사추위는 ▲전문이사 1인 ▲비상임이사 2인 ▲정보통신업계·법조계·언론계·학계 등의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사추위에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한 후 사추위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방식으로 사장 공모 절차가 이뤄진다.

코스콤 사추위는 10월 말부터 차기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해 지난 9일까지 한

차례 공모를 진행했다. 당시 정지석 현 사장을 포함해 11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코스콤 출신 인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지석 사장은 코스콤 최초의 내부 출신 사장으로 연임에 도전하는 첫 인물이다. 정 사장은 임기 내 본사 사옥을 매입하고, 신사업(핀테크·R&D 클라우딩·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코스콤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적자를 낸 일반사무관리 회사 HSBC펀드서비스를 임기 말 졸속으로 인수하고, 징계 대상자를 승진시키는 등 인사 전횡 논란에 휩싸여 노조와 과열음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코스콤 노조는 정지석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한국거래소 정문 앞에서 출근길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코스콤 노조 관계자는 “출근길 릴레이 시위는 정지석 사장이 후보등록을 철회하는 시점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17일) 오늘은 이동기 한국거래소 노조 위원장이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하마평이 도는 인물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 의원은 코스콤뿐만 아니라 차기 은행연합회 회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고,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장을 지냈으며, 8년 동안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편, 사장 후보 추가 공모는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후보자를 추가 모집한다는 점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 인사 부상을 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박미경 기자

비규제·교통 호재... 양평 분양시장 들쭉

양평 센트럴파크 씨앗
올들어 1억 가까이 올라
신규 분양도 순위내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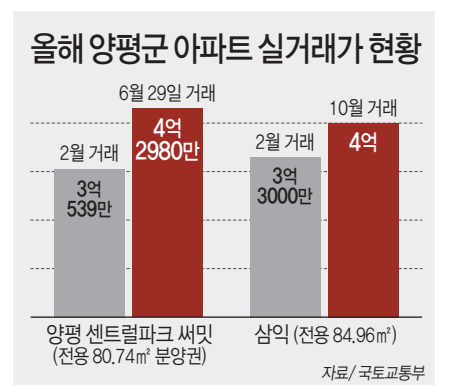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경기도 양평 주택이 최근 활황세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되고 고속도로 호재까지 겹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올 초 마이너스 프리미엄 속출한 것과 다른 분위기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양평 센트럴파크 씨앗(80.74㎡)’은 6·17대책 이후 최고가인 4억2980만원을 기록해 올들어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 단지는 지난 2월 분양가보다 9000만원이나 낮은 3억539만원(80.74㎡)에 거래돼 올 초까지 마이너스피(마이너스 프리미엄)를 형성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도 순위내 마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7월에 분양한 ‘양평 휴먼빌 센트럴시티’는 양평군 최고 청약경쟁률인 2.04대 1로 마감됐다. 같은달 분양한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도 423명이 몰리며 1.07대 1로 순위내 마감에 성공했다. 지난해 양평군 평균 청약 경쟁률은 0.55대 1을 나타냈다.

미분양도 제로 수준이다. 2015년 12월 217가구에서 2017년 12월 58가구,



2019년 12월 37가구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고속도로 등 교통여건 개선 등이 부동산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양평~화도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오는 2022년 개통한다. 또 서울 송파~양평간 고속도로(27km)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올해 양평군은 다문지구, 창대1지구, 창대2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3500여가구가 공급된다. 현재 3개 단지 1106가구가 공급됐고, 연말 3개 단지 2342가구가 공급된다.

반도건설은 이달 양평군 다문지구 공동1블록에서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9~84㎡, 740가구를 공급한다. 경의중앙선 용문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양평군 내 최초로 단지 내 별동건물인 U-라이프센터가 들어선다.

/이규성 기자 peace@

현대건설, ‘재해예측 AI’로 현장 안전관리 시작

3900만 이상 빅데이터 기반
당일 예상 재해위험 정보 제공

현대건설이 지난 10월부터 ‘재해 예측 AI’ 가동을 통해 본격적인 인공지능(AI) 기반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시작했다.

‘재해 예측 AI’는 현대건설이 현재 시공 중인 국내 전(全) 건설현장에 작업 당일 예상되는 재해위험 정보를 제공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현대건설이 과거 10년간 수행해온 토목, 건축, 플랜트 등 전체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3900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과거 실제 발생했던 안전재해 정보 뿐 아니라 현장 내 결빙구간에서 공사 차량이 미끄러져 전도될 뻔 하거나 인적 없는 곳에서 공사자재가 낙하한 사례 등 인적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데이터를



/현대건설

담고 있어, 건설현장의 잠재적 재해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다.

‘재해 예측 AI’는 현장 담당자가 별도 현장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예정 공사정보를 분석해 유형별 안전재해 발생 확률 및 안전관리 지침을 도출해 작업 당일 현장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각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해 항목별 사전점검 등

의 선제적 안전관리 수행이 가능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17일 “재해 예측 AI와 같은 빅데이터·AI 기반 연구가 향후 건설업계 업무방식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다년간의 시공 경험이 녹아있는 데이터를 통해 새롭게 개발 중인 기술들을 통해 현대건설이 디지털 건설기술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964@

KB證, 2020 애널리스트데이 온라인 개최

기관·법인고객 대상 언택트 세미나

KB증권이 오는 18, 19일 양일간 2021년 연간 전망을 제시하는 ‘2020 KB 애널리스트 데이(Analyst Day)’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관·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언택트 세미나 형태로 유튜브를 통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연구원들의 전망 자료 발표와 더불어 실시간 중계창 댓글을 통해 질문을 받고 애널리스트가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18일에는 자산배분전략·마크로 부문 연구원들이 2021년 경제 및 금융 시장 전망을 발표한다. ▲국내외 경제 전망 ▲국내외 주식 전략 ▲채권 ▲크레딧 ▲ETF ▲원자재 ▲부동산 등 자산별, 영역별 분석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산배분전략 방향을 투자자와 공유한다. 19일에는 기업분석부 연구원들이 담당 산업부문과 유망 종목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2020 KB Analyst Day’ 접속 링크는 행사 당일 전송될 예정이다.

/박미경기자